

(제5편) 일본의 TPP 추진 경과 및 곡물 관련 대책¹⁾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²⁾

1. 일본의 TPP 추진 경위

2010년 4월 교섭이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과 베트남 총 12개국이 높은 수준의 야심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균형 잡힌 협정을 목표로 진행해 온 경제협력 협정이다. 일본이 교섭에 참가한 2013년 3월 이후 여러 교섭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애틀랜타 각료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2016년 2월 뉴질랜드에서 서명이 진행되었으며, 일본은 같은 해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17년 1월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고 TPP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TPP로부터의 이탈을 표명했다. 당시 TPP는 참가국의 GDP 합계 85%이상을 발효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탈로 TPP의 발효는 불가능하였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에서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 내부적으로 TPP에 대한 입장 변경이 있었고, 대미 수출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TPP11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017년 11월 다낭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2018년 3월 칠레에서 TPP11 협정이 서명되었다. 현재까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7개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였고, 2018년 12월 30일 TPP11 협정은 발효되었다.

<표 1> TPP11 교섭 경위

1) 이 글은 일본 농림수산성, 「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공표자료 및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쌀, 밀, 콩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2) sdc1012@afj.or.kr

| 구분 | | 내용 |
|-------|-----|------------------------------------|
| 2017년 | 1월 | 미국, TPP 이탈 대통령각서 발표 |
| | 3월 | TPP 각료회의(칠레) |
| | 5월 | TPP 각료회의(베트남) |
| | 7월 | 제1회 TPP 고위급 실무회의(이후 4회 개최) |
| | 11월 | TPP 각료회의(베트남) → 대략 합의 |
| 2018년 | 1월 | TPP 고위급 실무회의(일본)→ 협정 본문 및 동결 항목 확정 |
| | 3월 | 서명식(칠레) |
| | 12월 | TPP11 발효 |
| 2019년 | 1월 | TPP11 각료급 위원회(일본) |
| | 10월 | TPP11 위원회(뉴질랜드) |
| 2020년 | 8월 | TPP11 각료급 위원회(화상회의) |

자료: 외무성.

2. 주요 곡물의 합의 결과³⁾

2.1. 쌀

2.1.1. 일본의 쌀 수입 방식

WTO협정에 의해 일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던 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입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5년 이후 매년 시장접근물량(이하 MA) 77만 톤(현미 기준⁴⁾)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MA쌀은 국영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수입차익(이하 마크업)을 징수하면서, 용도에 따른 매도 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MA 쌀 가운데 일반수입으로 매년 현미기준 약 67만 톤을 수입하고 비주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용은 SBS방식으로 매년 약 1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 SBS방식은 국영무역 하에서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매 방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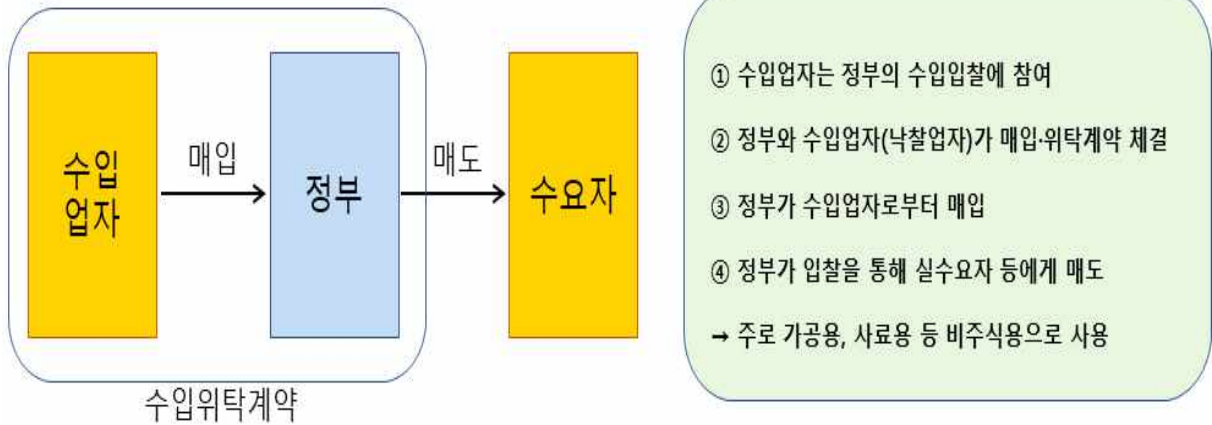
3)곡물 외 주요 품목 가운데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관세율 38.5%를 16년차에 9%까지 부분 감축하고, 별도의 ASG를 운영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 종량세는 10년에 걸쳐 인하, 종가세는 10년간 균등 철폐, ASG는 11년차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협정하였다.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TPP11 협정 내용은 허덕·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농정포커스』 17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 바람.

4)일본의 MA쌀 수입량의 단위는 일반수입의 경우 현미 기준을 적용하고, SBS수입에 대해서는 현미, 정곡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수입한 물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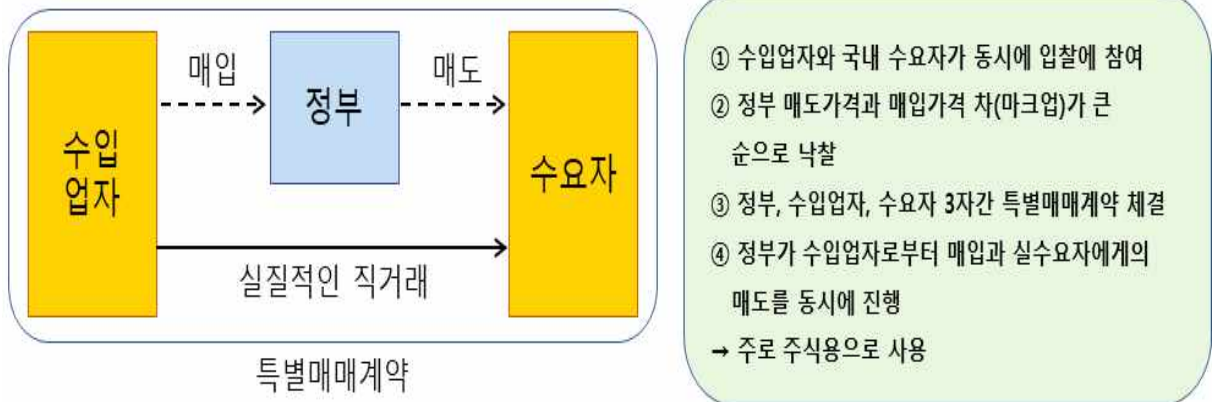
다.

<그림 1> 국영무역에 의한 일본의 쌀 수입 방식

[일반수입](MA쌀 약 67만 톤)



[SBS 물량](MA쌀 최대 10만 톤+TPP11 호주 키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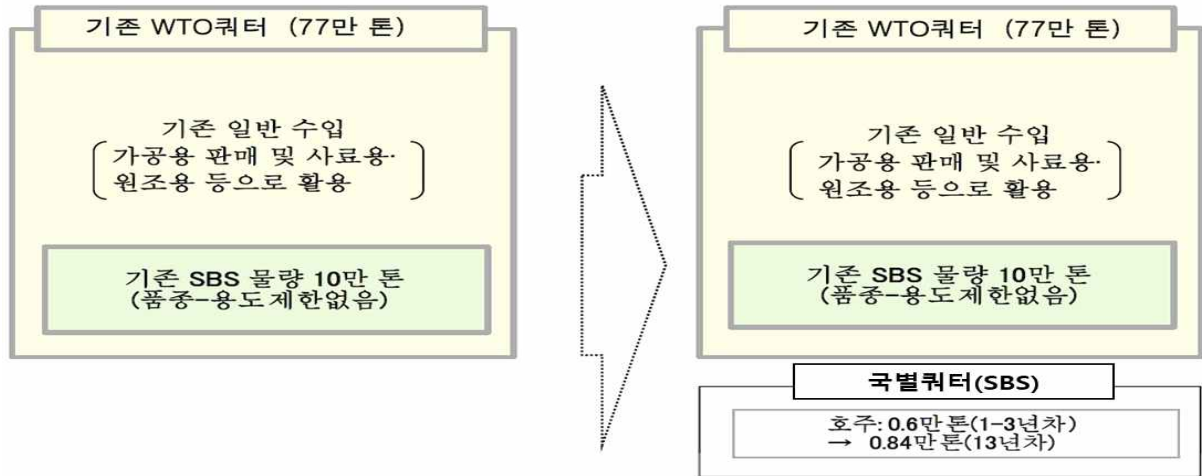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1.2. 쌀 및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TPP11 협정결과, 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호주에 대해 추가적인 국별 키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호주의 무관세키퍼는 쌀과 쌀가루 등을 SBS방식으로 1~3년차에 6천 톤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8년차에는 8,400톤까지 증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 쌀 협상결과 및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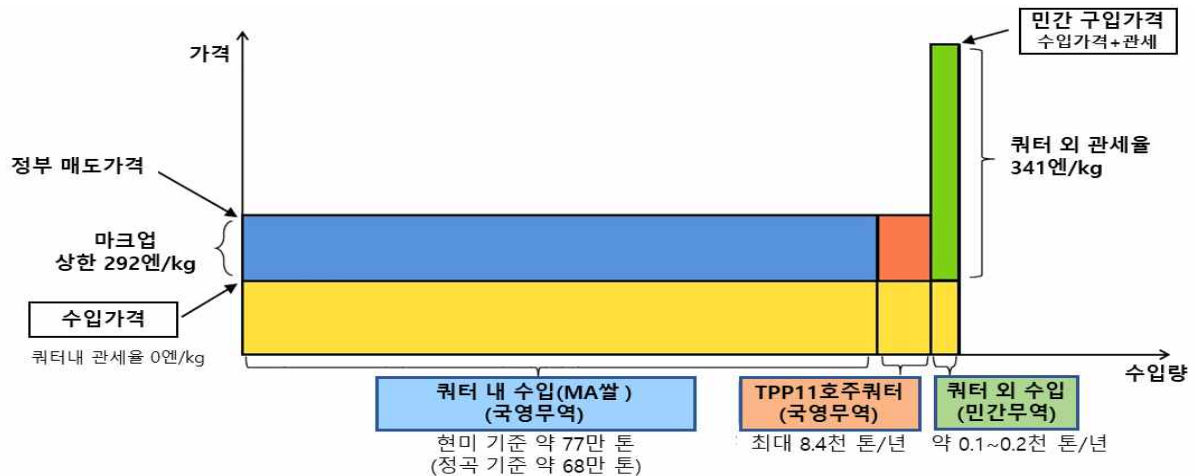
주 1) 입찰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의 관점에서 SBS의 운용방식의 일부에 대해 기술적인 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쌀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WTO협정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MA 쌀(쿼터 내 수입)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kg당 341엔의 높은 2차 세율을 부과하여 수입(쿼터 외 수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MA쌀 이외의 쌀 수입량은 현재까지 연간 약 100~200톤 수준으로 미미하다.

TPP11 발효 이후에도 과거 WTO협정에 따른 기존 MA쌀에 대해서는 마크업 상한 292엔/kg과 쿼터 외 수입량에 대한 관세율 341엔/kg⁵⁾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3> 일본의 쌀 국경조치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5) 증가세 환산 시 778%(정미 기준)로 WTO협상(2000년-)에서 비종가세의 관세상당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연도(1999~2001년)의 수입가격 및 국제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수치임.

쌀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총 13개 품목의 관세를 5~25%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입량이 많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총 16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삭감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 쌀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 구분 | | 관세율 | TPP회원국에서의 수입량 (2011~2013년 평균) |
|-------------------|---------------|-------------------------------|----------------------------------|
| 일정 수입이 있던 품목 | 쌀가루조제품(가당) | 23.8%→17.8% (6년차까지 25% 감축) | 약 1만 6천 톤 |
| | 쌀가루조제품(무당) | 16.0%→13.6% (4년차까지 15% 감축) | 약 4천 톤 |
| | 기타 11품목 | 5% 즉시 감축 | - |
| 기존 수입량이 미미한 품목 | 곡물가공품(좁쌀 죽 등) | 21.3%→5.3% (6년차까지 75% 감축) | 약 130톤 |
| | 기타 15품목 | 11년차까지 관세 철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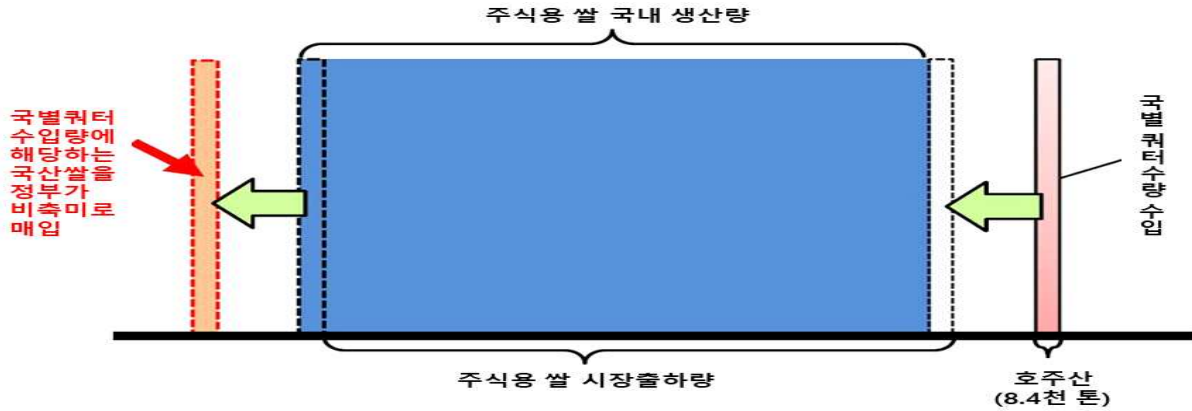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

2.1.3. 향후 전망

쌀 관련 협상 결과, 호주에 무관세 쿼터를 추가 제공하게 되었으나, 기본적인 수입의 골조는 변경하지 않고, 현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MA쌀 이외의 수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별 쿼터의 증량에 따른 국내 쌀 유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국산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별 쿼터 증가가 국내산 주식용 쌀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비축미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추가된 국별 쿼터 물량에 해당하는 국산 쌀을 정부 비축미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국별 쿼터량 증가가 국내산 주식용 쌀의 생산 및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 국별쿼터 증가에 따른 비축미 운영 방향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 T P P 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2. 밀, 보리

2.2.1. 일본의 밀, 보리 수입 방식

밀과 보리는 쌀과 함께 일본에 있어서 주요 식량 중 하나인 동시에 논농사의 전작 작물, 기타칸토(北關東)·기타큐슈(北九州) 등에서의 논 후작 작물, 홋카이도에서는 대규모 밭농사의 윤작 작물로서 국내생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높은 2차 세율로 쿼터 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쿼터 내 수입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운용함으로써 외국산 밀의 무질서한 유입을 제어하고 있다.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한 밀과 보리의 최대 마크업은 각각 kg당 45.2엔, 28.6엔이다. 한편, 쿼터 외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밀과 보리에 각각 kg당 55엔과 39엔의 2차 세율이 부과되어, 일본의 밀과 보리의 수입은 대부분 국영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 밀과 보리의 국경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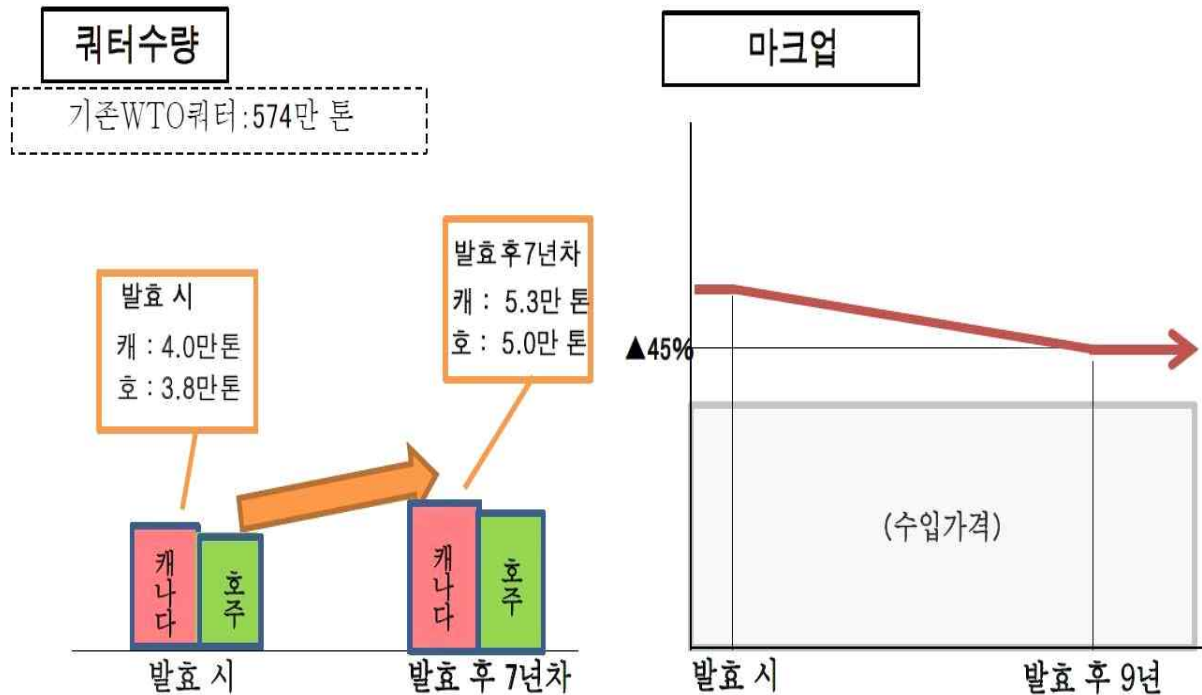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 T P P 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2.2. 밀, 보리 협상 결과

밀은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 55엔/kg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다만,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에 추가로 호주, 캐나다에 각각 국별 쿼터(국영무역 SBS방식)를 신설하고 7년차까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WTO협상에 따른 마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감축⁶⁾하고, 추가된 국별 쿼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6> 밀 협상결과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의 내용을 재구성.

밀 관련 제품의 협상결과,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쿼터외 관세는 유지하되 쿼터수량을 발효시 12.5천 톤에서 6년차에 17.5천 톤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베이커리용 및 기타 밀가루 제품의 경우 쿼터내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쿼터수량은 6년차에 20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하였다.

6)주요 5개 품종 이외의 밀에는 마크업을 9년차까지 50%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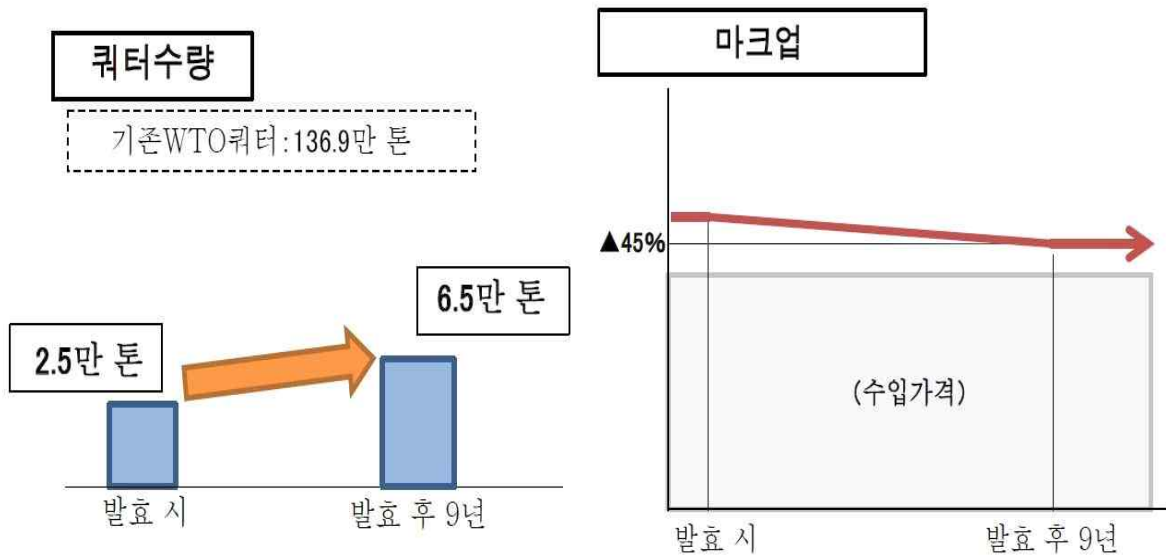
<표 3> 밀 관련 제품의 협상 결과

| 구분 | 관세율 | 쿼터수량 | 수입량(2011~13년 평균) | |
|------------------------|-----------------------------|------------------------------|------------------|--------|
| | | | TPP회원국 | 세계 |
| 볶은밀, 밀가루 등 (국영무역품목) | 쿼터내 무관세+마크업 (쿼터외 관세는 유지) | (발효시→6년차) 12.5천 톤→17.5천 톤 | 0.6천 톤 | 3.7천 톤 |
| 베이커리용 밀가루 제품 | 쿼터내 즉시 철폐 (쿼터외 관세는 유지) | (발효시→6년차) 17.3천 톤→20천 톤 | 17천 톤 | 41천 톤 |
| 기타 밀가루 제품 | 쿼터내 즉시 철폐 (쿼터외 관세는 유지) | (발효시→6년차) 15천 톤→22.5천 톤 | 24천 톤 | 69천 톤 |
| 마카로니, 스파게티 | 9년차까지 60% 감축 | - | 22천 톤 | 136천 톤 |
| 비스킷 | 6년차에 철폐 | - | 8천 톤 | 21천 톤 |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

보리는 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 39엔/kg을 유지하되,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수량에 TPP11쿼터(국영무역, SBS방식)를 신설하고, 9년차에 6.5만 톤까지 증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기존의 마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 감축하고, 추가된 TPP11쿼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7> 보리 협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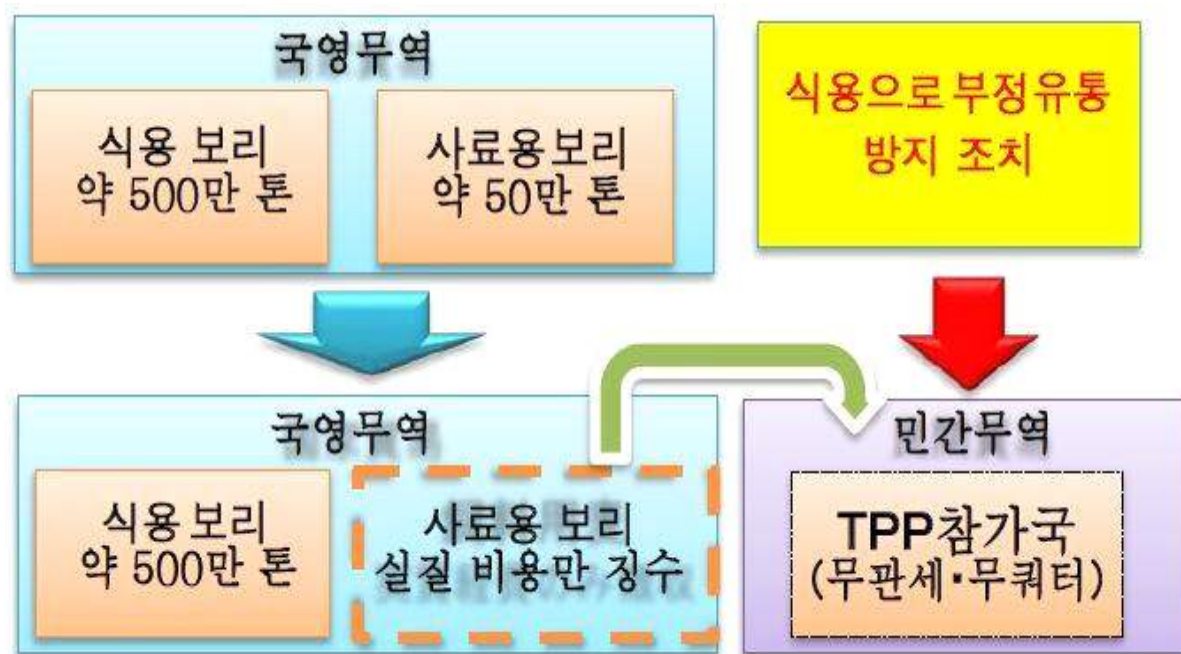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 인용.

사료용 보리는 기존 국영무역(SBS) 하에서도 일정한 마크업만 징수하고 있어 보리 관련 주요 사료 원료는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TPP11협상 결과, 사료용 보리의 경우 식량용으로의 부정유통 방지 조치를 강구한 후 마크업을 징수하지 않는 민간무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사료용 비타민 제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사료용 보리는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협상결과는 보리의 국내 생산 및 사료용 보리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8〉 사료용 보리의 합의 결과



자료: 농림수산성, 「TPPにおける重要5品目等の交渉結果」에서 재인용.

2.2.3. 향후 전망

일본은 국내산 밀과 보리로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국영무역을 통해 계획적인 수입의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TPP11 협정에 따른 새로운 쿼터수량은 기존의 쿼터로 수입되고 있는 물량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며, 국산 밀과 보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마크업 인하에 따른 수입밀과 보리의 가격 하락이 국내산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국내산 밀과 보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검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2.3. 콩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일본은 콩이 1980년 정식으로 무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잡두(팥, 강낭콩, 완두콩, 누에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하여 수입해 왔다(전체 12만 톤). 잡두의 기존 쿼터 내 관세는 10%였으나, 쿼터 외 관세율은 kg당 354엔으로 설정하여 쿼터 외 추가 수입은 제어해 왔다.

협상결과, 일본은 잡두의 쿼터 내 관세는 즉시 철폐하되 쿼터 외 관세율은 유지하고, 기존 쿼터물량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생산으로 부족한 양을 수입을 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잡두의 수입에 있어서 기존 수입 대상국이 TPP11 참가국으로 전환되는 수준으로 내다봤고, 국내 생산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 두류 협상결과

| 구분 | 현재 관세율 | | 합의 내용 | | 국내 생산량 | 수입량 | TPP참가국 |
|-----|--------|---------|-------|-----------------|--------|--------|---|
| | 쿼터 내 | 쿼터 외 | 쿼터 내 | 쿼터 외 | | | |
| 팥 | 10% | 354엔/kg | 즉시 철폐 | 현행 유지 | 7.1만 톤 | 2.6만 톤 | 계: 1.1만 톤 캐나다: 1.0만 톤 미국: 0.09만 톤 |
| 강낭콩 | 10% | 354엔/kg | 즉시 철폐 | 현행 유지 | 1.8만 톤 | 3.4만 톤 | 계: 1.5만 톤 미국: 0.9만 톤 캐나다: 0.6만 톤 |
| 땅콩 | 10% | 617엔/kg | 즉시 철폐 | 8년차 까지 철폐 | 1.7만 톤 | 2.7만 톤 | 계: 0.9만 톤 미국: 0.9만 톤 호주: 0.02만 톤 |

주 1)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은 최근 3개년 평균임.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 P P 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인용.

3. TPP협상에 따른 주요 곡물 관련 대책

3.1. 경영안정 및 공급안정을 위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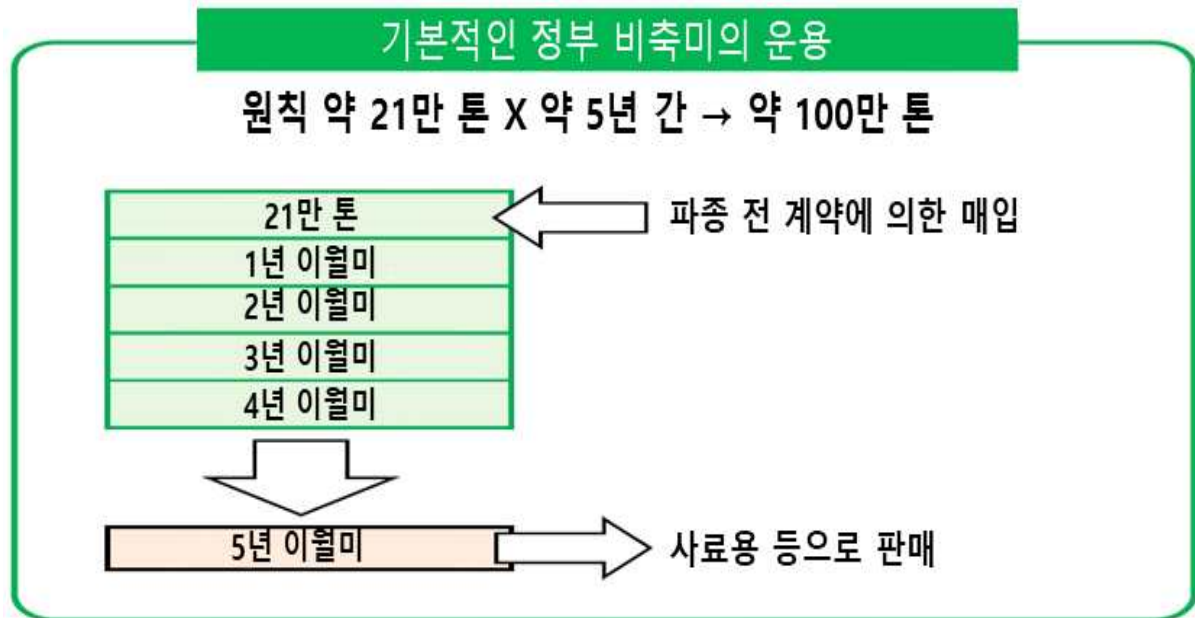
쌀, 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품목의 경영 안정 및 공급 안정 대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쌀은 추가된 국별 쿼터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량을 정부가 비축미로 구매하고, 국산 밀과 보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3.1.1. 정부 비축미 운영의 재검토

일본은 정부 비축미의 적정수준을 100만 톤 정도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⁷⁾. 정부의 비축미 매입 및 판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주식용으로 비축미를 판매하지 않고,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⁸⁾.

기본적인 운용방식은 총 비축물량 약 100만 톤 정도를 설정하여 매년 파종 전 계약에 의해 21만 톤을 매입하고, 5년 이월된 쌀을 사료용, 가공용, 원조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 매입량은 매년 20만 톤 정도를 유지해 왔으나, TPP협정에 따른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에 기초하여 호주 국별 쿼터 물량을 추가한 21만 톤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9〉 정부 비축미의 기본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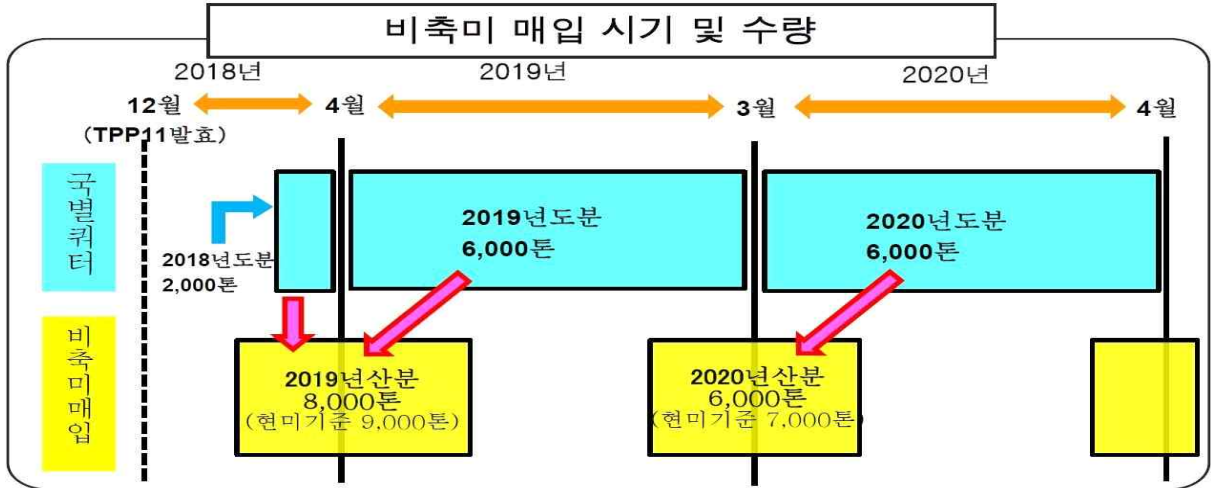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수입산 입찰연도와 동일한 연산의 국내산 쌀을 기존의 비축 쌀 매입 방식과 동일하게 수확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물량과 TPP 협상 물량을 구분하여 TPP 물량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이는 TPP 국별 쿼터에 의한 수입량 증가가 주식용 쌀의 수급 및 가격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7) 10년에 한번 정도의 흉작 수준 또는 보통 정도의 흉작이 2년 연속된 상황에도 국내산 쌀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임.

8) 비축미를 주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대흉작 등의 경우에만 해당함.

<그림 10> 정부 비축미 운영 방향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1.2. 경영소득안정대책을 통한 국내산 밀, 보리의 공급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마크업 인하에 따른 국산 밀과 보리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 ‘경영·소득 안정대책’을 적절히 실시하여 표준생산비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교부금으로 보전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밀가루 및 관련 제품의 쿼터물량 설정에 대해서는 고품질 밀의 도입, 품질 안정화 및 수량 향상, 제분공장 재편 정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11> 밀 경영안정 및 공급안정을 위한 대책



자료: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PP対策」, 2016년 2월 공표자료에 재인용.

3.2. 고품질 농림수산물 수출 등 수요 프런티어 개척

일본은 TPP협상을 통해 얻은 회원국들의 관세 철폐 성과를 일본의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외국의 수입규제 완화·철폐에 따른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방사선 물질 등에 관한 수입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12>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수출환경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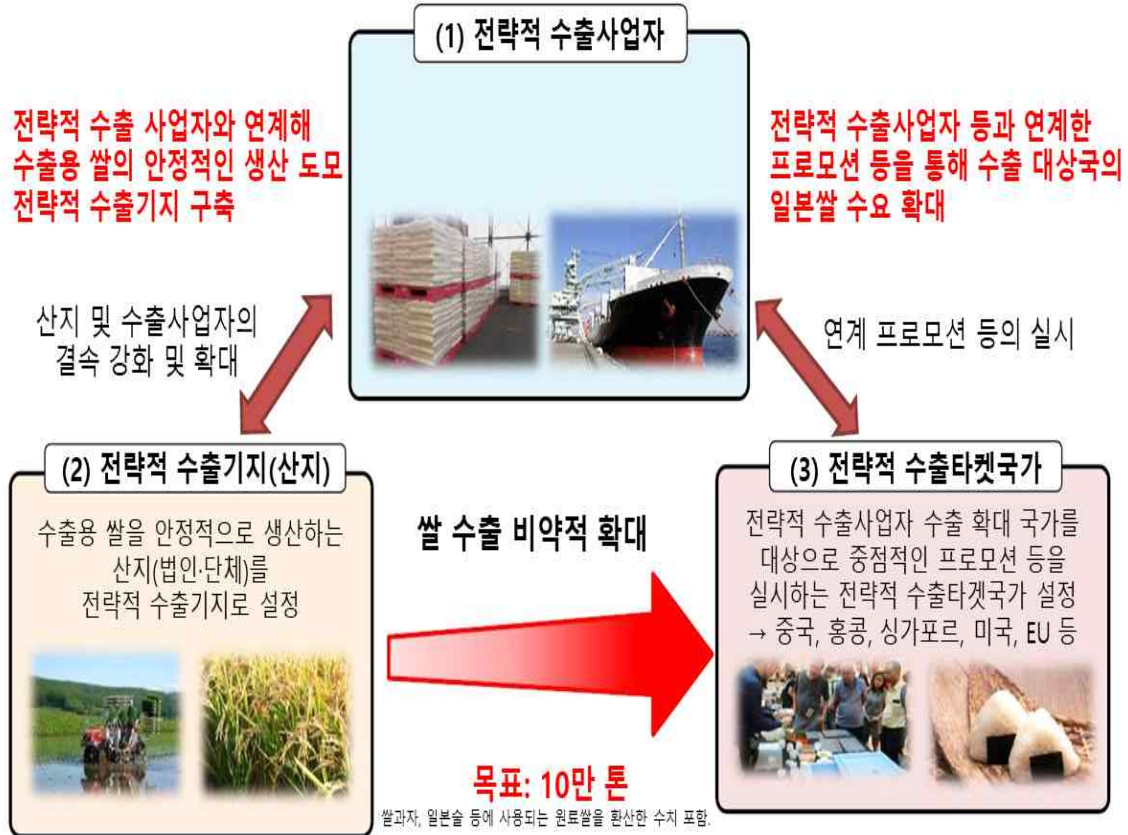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 자료에서 재인용.

한편, 수출 품목의 체질 강화를 위해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출의 전략적 프로모션 강화, 조기의 성과가 전망되는 중점 분야 및 테마별 해외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쌀 소비량이 매년 약 10만 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 자급률 및 식량 자급력의 향상이나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쌀 수출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배정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림 13>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3. 국제경쟁력 있는 산지 이노베이션 촉진

논, 밭작물 등에 있어서 산지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강점을 살린 혁신을 도모하고, 스마트농업을 중소·가족 경영 및 조건불리 지역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이나 가공·업무용 등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의 생산기반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배수 개량 등을 통한 논을 밭으로 만들기, 농지의 구획 확대, 밭지대 관개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밭의 고기능화 등 기반정비를 통해 고수의 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체계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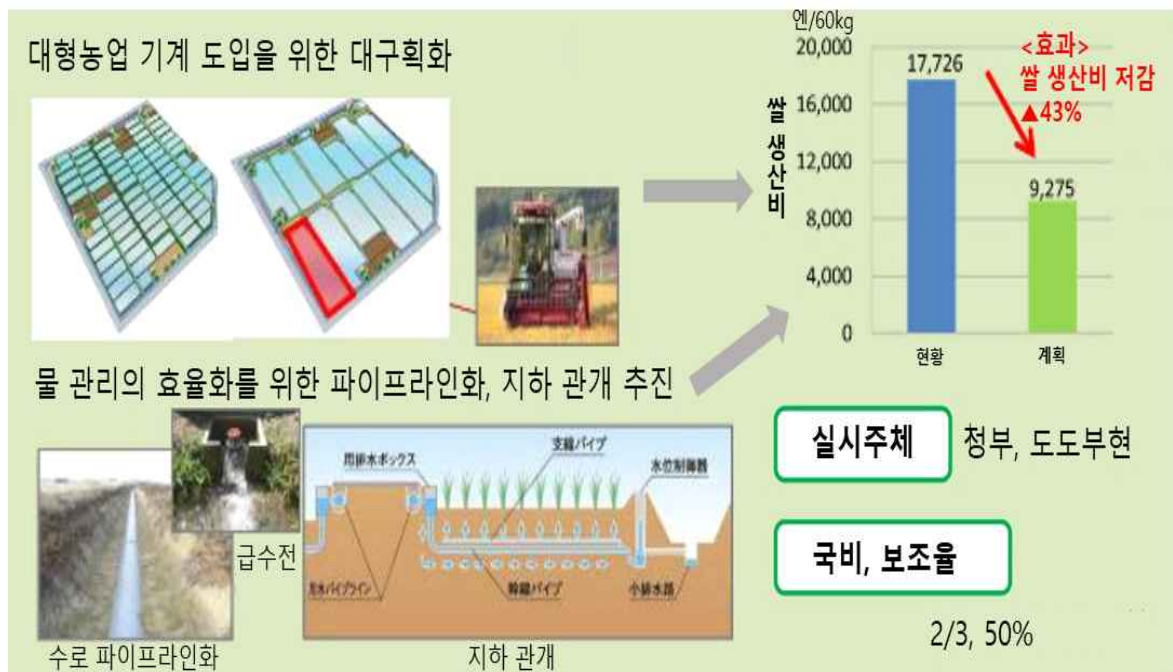
한편,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중점실시구역 등에서 농지의 구획화 및 범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쌀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농지의 대구획화, 배수 개량, 물 관리의 생력화 등을 위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4>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고수의 작물 중심으로의 영농체계 전환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 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15>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지의 구획화 및 범용화



자료: 농림수산성, 「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2020년 2월 공표 자료에서 재인용.

4. 맺음말

2017년 1월 미국의 이탈로 TPP 협정은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2017년 11월 다낭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2018년 3월 칠레에서 서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TPP11 협정은 발효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국별 쿼터 등을 제공하였다. 쌀은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되, 호주에 대해 추가적인 국별 쿼터 8,400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밀과 보리는 기존의 국영무역 제도를 지속하며, 쿼터 외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밀은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에 호주, 캐나다에 각각 국별 쿼터를 신설하고 보리는 기존 WTO협상에 따른 쿼터수량에 TPP11 쿼터를 추가하였다.

또한, 밀과 보리는 기존의 마크업을 9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45% 감축하기로 하였다. 사료용 보리는 마크업을 징수하지 않는 민간무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TPP 발효에 따른 쌀, 밀, 보리 등에 대한 국내 생산 및 농가 소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쌀은 추가된 국별 쿼터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량을 정부가 비축미로 구매하고, 국산 밀과 보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TPP 협상을 통해 얻은 회원국들의 관세 철폐 성과를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쌀 해외시장 확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약 2만 톤 수준의 쌀 수출을 10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 수출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TPP11을 기회로 살려 쌀 수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농정 포커스」 17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12월.

허 덕, 김태런,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 호(9 권 2호)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농림수산성, 「T P Pにおける重要5品目等の交渉結果」

농림수산성, 「総合的なT P P等関連政策大綱に基づく農林水産分野の対策」, 2020년 2월.

농림수산성, 「農政新時代, 水田・畑作分野におけるT P P対策」, 2016년 2월.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mofaj/gaiko/tpp/index.html>).